

2012 SUMIJO CONCERT



2012 THE LAST CONCERT 'DELIGHT'

조수미

CAST 가수 바다 뮤지컬 배우 최재림

2012.12.30 (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YTN 후원 YTN드림 YTN NEWS 94.5 YTN SCIENCE R/VIP 170,000원 VIP 13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INTERPARK 티켓 1544-1555

YTN

2012 December Volume. 101



HOT ISSUE

YTN 개인시청률, 선호도 압도적 1위

ZOOM IN

날씨를 조율하는 사람들-케에웨더 탐방

취재·제작기

'돈 먹는 하마'...애물단지의 탄생

콘텐츠 확대

YTN 사이언스-과학한류를 꿈꾸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2년 임진년 한 해도 어느덧
석양처럼 저물고 있습니다.

팩트를 넘어 숨겨진 진실을 찾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슈와 씨름하고,
블러드 오션으로 변한 방송 환경속에서...

YTN 앵커들에게는 늘 그랬듯
생방송의 최전선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한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쉬움 속에 저무는 임진년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을 차분히 준비하며...

새해에도 더 밝은 소식, 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팀장 **송경철**



Contents

— Cover Story

- 04 앵커들이 말하는 YTN 대표 프로그램
- 06 앵커 가족이야기 - 나는 두 아들의 엄마다

— Hot Issue

- 08 YTN 개인사청률, 선호도 압도적 1위

— 특별기고 I

- 10 호모빌리언스와 YTN

— 특별기고 II

- 12 YTN 사이언스에 바란다

— Zoom In I _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한다

- 14 응답하라: YTN 1호기!
- 16 TV-U, 뒤에!

— Zoom In II

- 18 날씨를 조율하는 사람들 - 케이웨더 탐방

— 취재 · 제작기

- 20 인터넷에서 건진 특종
- 22 '돈 먹는 하마'...애물단지 의 탄생
- 24 독도를 점령하다
- 26 퇴근 무렵 제보전화에 주목하라

— 콘텐츠 확대

- 28 YTN 라디오 - 드림콘서트 '꿈을 향해 가는 길'
- 30 YTN 사이언스 - 과학 한류를 꿈꾸다
- 32 YTN DMB - 스페셜 '기후변화 생존백서'

— 2012 어젠다 _ 나누는 행복, 따뜻한 사회

- 34 어우러기의 비타민 YTN

2012, YTN의 얼굴



앵커들이 말하는

YTN 대표 프로그램



진행 ▶ 오동건 이진주
시간 ▶ AM 5시~7시

뉴스출발과 함께,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는 뉴스! 뉴스출발!”
새벽을 깨우는 뉴스! 당신의 아침을 열어주는 뉴스출발은,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잔처럼 따뜻한 소식으로, 영양가 많은 아침식사처럼 풍부한 소식으로, 새벽을 진실되게 열겠습니다.

미리보는 오늘, 뉴스오늘

여러분의 오늘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냉철하면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멘트의 달인 이승현 앵커와, 쏟아질 듯 한 큰 눈으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오수현 앵커가 진행하는 미리보는 오늘, 뉴스오늘. 빠르게 돌아가는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보는 오늘, 뉴스오늘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진행 ▶ 이승현 오수현
시간 ▶ AM 8시~10시

생생한 뉴스의 현장을 '뉴스 현장'에서!

“000이 지금 검찰에 나왔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000 관련 입장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000 지역의 주민 한 분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현장의 실제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생한 뉴스의 현장을 '뉴스 현장'에서!



진행 ▶ 정찬배 윤재희
시간 ▶ AM 10시~12시



진행 ▶ 성문규 이승민
시간 ▶ PM 1시~3시

오늘의 이슈가 궁금하십니까?

오늘의 이슈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뉴스엔이슈와 함께하세요. 뉴스가 쏟아지는 낮시간대,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전문가나 화제의 인물이 직접 출연해서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밝혀드립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진행 ▶ 송경철 김선영
시간 ▶ PM 4시~6시

뉴스 'Q'는 뉴스 Queen이 될 것입니다

낮 시간대 YTN의 자존심을 지키는 뉴스 Q.
종편 출범과 함께 적진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뉴스 Q.
그러나 YTN 가족들의 열정 속에서 뉴스 'Q'는 뉴스 Queen이 될 것입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책임집니다!

일과로 지친 여러분을 위해 그날의 소식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단신이 가장 많은 뉴스 시간대여서 앵커들의 목은 힘들지만, 여러분은 제일 다양한 뉴스를 짧은 시간 안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귀로만 들었을 때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를 앵커들이 그래픽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 하듯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앵커들이 머리를 뜯어가며 고심해서 구성한 그래픽인 만큼 잘 감상해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 ▶ 진유현 이여진
시간 ▶ PM 6시~8시



진행 ▶ 함형건 이주선
시간 ▶ PM 10시~12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뉴스 나이트입니다

“오늘 발생한 뉴스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취재기자로부터 오늘의 핫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어보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사회관계망분석(SNA) 등 다양한 컴퓨터 활용 취재기법을 활용해 앵커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로 내일의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뉴스 나이트입니다.”



나 는

두 아 드 로 의

엄 마 다



“울 엄마 일하러 가셨어요. 울 엄마 YTN 앵커 윤재희예요.” 똑 부러지는 요 녀석은 장남 민준이다. 태어난 지 11개월 만에 간단한 문장을 구사하여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 장남. 얼마 전 세 번째 생일을 맞은 녀석의 장래희망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다. 공룡 중에 제일 무서운 공룡이므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를 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 되는 게 꿈이라, 우리 부부는 풀이하고 있다.

“어엄마아~~~~?” 둘째는 형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형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를 듣고 잔뜩 기대한 우리 부부. 세상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말을 터득한 천재로 기네스북에 올리려 했던..... 17개월인 우리 둘째 현준이,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뽀~(포도)”다.

그렇다. 나는 두 아들의 엄마다. 4살과 2살 아들 둘. 이거 장난이 아니다. 집안은 치워놓으면 반 시간 만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형아에게 맞은 둘째의 짜증 섞인 울음소리와 첫째를 혼내는 나의 초 고음 훈계로 조용할 날이 없다. 누가 그랬던가. 일단 넣으면 형제는 지들이 알아서 클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발뚱 일어나 앉아 엄마를 내려다보다가 5분을 기다려도 엄마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불을 “ 짹~ 짹~!” 소리 나게 때리는 둘째는 잠들기 직전까지 엄마를 옆에 두려한다. 혼자서도 잘 노는 녀석이었지만 형아의 이유 없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 시작된 후 혼자 있음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

동생 옆에서 엄마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첫째는 어린 나이에 형아가 된 탓에 질투도 많고 엄마의 정을 항상 그리워한다. 그래도 잘 참아줬고 잘 커 준 든든한 녀석이다. 돌잔치도 하기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들 녀석들은 자주, 아주 자주 잔병에 걸리는 것으로 엄마에게 복수한다. 두 달 전부터는 엄마가 새벽에 출근하자 수족구 등 온갖 전염병까지 걸려와 엄마를 바싹바싹 마르게 하던 이 녀석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병은 우애 좋게 나눠 가져서 함께 앓는다. 애물단지 같은 이 녀석들.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들이다. 이대로 고꾸라져서 입원이라도 하면 좀 실 수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에도 “엄마~” 부르며 달려드는 녀석들의 환한 얼굴만 보면 다시 한번 파이팅 하게 된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있지만 나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무자식이 헛팔자’.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밤새 40도에 이르는 열에 잠 못 자는 아이와 밤을 꼴딱 새워보지 않은 자, 아이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자..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난 오늘도 아이들로부터 인생을 배운다.

뎃. 아이들 애길 하느라 신랑 애길 빠뜨렸다. 다음 에피소드로 같음하잖~ ^^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아빠와 첫째 민준이가 간단한 퀴즈쇼를 펼친다.
“민준아~ 아빠가 흉내 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멍멍~” “강아지~!”
“딩동댕~ 꿀꿀~” “돼지~!”
“딩동댕...음... 도대체 몇시대 아직 그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럴 거면 아예 손대지 마!!!!”
바가지 굵는 너를 흉내 내는 신랑. 나도 아이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몇 초 상당히 고민하던 첫째
“음...음.....개!”
“딩! 똥! 똥~!!!!!!!!!!!!!!”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다...쩝



Y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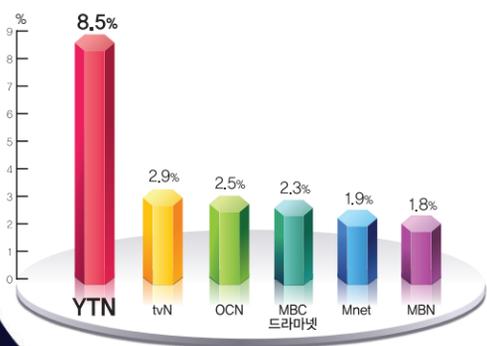
/개인시청률
/채널선호도

/즐거보는 뉴스채널 **압도적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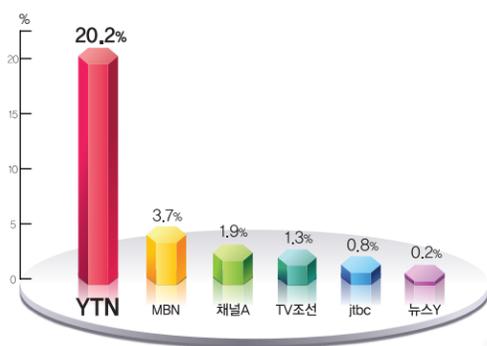
한국의 뉴스채널 YTN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개인시청률과 채널선호도, 즐겨보는 뉴스채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개인시청률은 '내가 어제 본 채널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며, 8.5%가 YTN이라고 대답했다. YTN이 지상파 계열PP와 종합편성채널 등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tN은 2.9%로 2위, OCN은 2.5%로 3위를 기록해 2·3위와 차이가 3배에 이른다.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채널' 조사에서도 YTN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1위에 올랐다. YTN 2.8%, OCN 1.1%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이 드라마와 오락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YTN이 뉴스 프로그램만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는 평가이다. YTN은 특히, 뉴스를 편성할 수 있는 PP가운데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채널로 평가받았다. YTN이 20.2%, MBN 3.7%, 채널A 1.9%로 종합편성채널과는 5배에서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방송 뉴스의 흥수 속에서 YTN 보도가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개인시청률



즐거보는 뉴스채널



“YTN, 보도채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2 미디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미디어리서치는 광고주협회에서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미디어현황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환경과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만 명을 개별면접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개인시청률' 부문에서 YTN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조사 결과 설명해주시죠.

개인시청률이란 어제 하루 동안 시청한 TV채널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응답을 얻고 있는데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요일을 안 배했습니다. 그 결과 YTN은 어제 시청한 채널 중 '보도/경제/공공채널분야채널' 군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채널(8.5%)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시청률' 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청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디어리서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플 미터기로 조사되는 시청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률은 매 1분마다의 시청여부가 수집되어 계산되지만 이번 미디어리서치에서 사용한 개인시청률은 '어제 하루 5분이상 시청한 TV채널'을 말하며 시청자들이 직접 응답한 수치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채널' 조사에서도 YTN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1위에 올랐죠?

시청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TV채널 하나를 응답하게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에서는 YTN이 1위(2.8%)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즐거보는 뉴스채널' 부문에서도 YTN이 종편이나 다른 보도채널을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 말씀해주시죠.

시청자들에게 지난 1주일 동안 즐겨보신 뉴스채널을 물어본 결과 YTN이 20.2%로 종편이나 다른 보도채널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국한지 1년이 안된 종합편성채널의 응답률과 비교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YTN이 방송채널사업자 가운데 개인시청률과 가장 좋아하는 TV 채널, 또 즐겨보는 뉴스채널전 분야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미디어조사는 시청자의 실제 시청행태를 조사하는 시청률 조사와 달리 응답자의 인식과 선호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에서 YTN은 시청자의 인식 속에서 보도채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YTN의 채널 브랜드가 잘 각인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닐스코리아 이사 최원석



호모 모빌리언스

인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반한 1차 진화 단계를 지나 학습을 통한 2차 진화 단계를 거쳐 왔다. 교육에 의한 지식의 축적과 전달은 다양한 인류문명을 탄생시켰고, 보다 많은 문화적 혜택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이제 인류 진화의 역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과연 제3의 인류 진화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오늘날 인류는 호모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호모루덴스, 호모 디지쿠스에 이어 새로운 인류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실크로드에서 인터넷까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는 스마트혁명을 맞아 진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똑똑해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는 인류를 슈퍼맨 사이보그로 진화시키고, 더욱 강력해진 소셜 네트워크는 인간을 집단 생명인 초인류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 두가지 새로운 진화가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를 창발시킨다는 것이다.

사람 몸의 일부가 기계로 결합된 것이 사이보그라면 이미 인류는 모바일 장비(스마트폰 등)와 결합되어 있다. 24시간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있다면, 이미 스마트폰이 인간의 신체내에 삽입된 것과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스마트폰이 인간과 결합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 과거 초능력을 갖는 것은 600만 불의 사나이 혹은 수십 년 수도를 한 고승들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동시성, 원격투시, 초감각 등의 초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스마트폰과 결합하면서 슈퍼맨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미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생명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모 스마트폰 제조사의 "it's different"라는 광고 카피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르다는 것은 기계의 속성이 아니다. 생명의 속성이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의 속성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 인류는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진화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초인류의 등장이다.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는 인류 개체를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돌입시키는 것은 물론 인류 전체를 새로운 종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마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이나, 개미 집단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파악되는 것과도 같다. 이러한 집단 생명을 초생명(超生命)이라 한다. 인류는 소셜 네트워크에 의하여 폭발적으로 상호작용이 촉진되어 마침내 집단생명을 만드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인류가 각각의 개체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생명을 갖는 초인류(超人類)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붉은 악마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어느 외국 언론이 얘기하듯이 누군가의 사전 기획과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화되어 생명을 불어 넣은 현상이다. 붉은 악마는 이러한 초생명 현상의 서곡인 셈이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는 이를 촉진시키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다중생명(多重生命)을 가지게 될 것이다. Off Line의 자아와 자신이 속한 사이월드의 일촌들, 각종 블로그 등에 존재하는 다중생명을 가지게 된다. 2nd Life 정도가 아니라 3rd, 4th Life가 일반화되게 된다. 이제 인간의 새로운 철학적 정의가 요구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한국이 주도하기 위하여 호모 모빌리언스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천지인(天地人)이 선순환하는 홍익인간 정신이 그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카이스트 교수 /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이민화

과학 한류 바람의 진정한 조타수가 되길 바라며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고 K팝, 영화 등 문화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문화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과학 한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투 자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62년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과학기술 R&D 투자를 진행한 결과, 우리는 50년 만에 놀라 운 결실을 거뒀습니다. 아시아 최초 G20 정상회의 개최,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7번째 2050클럽 가입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공적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개가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R&D 기획·평가 전문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도 우리의 과학기술 노후가 반영된 한국형 R&D 모델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KISTEP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 R&D 기획·평가·관리 기법을 전수하는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산하 첨단기술민관공사(MIGHT)와 협약을 맺고 국가 미래예측 계획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 하며, 캄보디아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형 R&D 모델을 배우려는 교육에도 개도국 고위공무원들의 참여 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과학 한류의 바람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YTN SCIENCE가 이러한 과학 한류 바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조타수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양질의 콘텐츠와 기획력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출범한 YTN SCIENCE 자문위원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과학·교육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 고 질 높은 콘텐츠로 과학기술 대중화에 앞장서 온 YTN SCIENCE가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명품 과학콘텐츠를 제작해 과학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



하늘을 지배하라!

2개의 중,대형 태풍이 연속적으로 한반도를 휩쓸고 간 지난 8월 31일 아침. 비구름이 걷히자 태풍 피해지역의 영상을 담기 위해 현장을 가라는 특명을 받는다. 주요 촬영 포인트는 양식장 피해가 큰 전남 남해안 지역. 힘찬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YTN 1호기. 그러나 이륙 신호는 떨어지지 않고 김포공항 관제센터와 기장의 교신은 계속 헛돌고 있다. “칙~~~ HL 6141 대기하라!” 전남 영암까지 내려가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팀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영상취재부 차장 원종호

그러나 헬기의 기체는 이미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0여 분의 비행 중 갑자기 두꺼운 안개와 맞닥뜨렸다. 10M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안개속으로 헬기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고 할까? 기장도 당황하며 신속히 고도를 높여 안개를 빠져나오는 찰나 시커먼 물체가 딱하니 버티고 있다. 산위에 솟아있는 전신주 바로 코앞이었다. 하마터면 큰일을 당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어렵사리 태풍피해 현장에 도착한 헬기! 비닐하우스는 하나같이 지붕이 뜯기고 무너져 내렸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하천 옆 마을에는 군인과 주민이 함께 나서 가재도구를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헬기촬영은 흔히 볼 수 없는 임팩트가 강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희열과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변화무쌍한 기상의 공포가 공존하는 두 가지 맛을 지닌 사탕과도 같다.

YTN 헬기 도입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만 5년이 넘었다. 설, 추석 명절 고속도로 정체 스케치부터 휴일스케치, 각종 사건·사고, 강원도 폭설, 태풍피해 현장 등 전국을 누비며 지상에서만 촬영하기에 부족한 영상을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수준 높고 생생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방송사 중 공중파 3사를 제외한 헬기촬영을 도입해서 쓰

는 곳은 우리 YTN이 유일하다. 24시간 뉴스를 다루다 보니 헬기촬영의 영상은 주요 부분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5년이란 시간 동안 축적된 헬기영상은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 나로우주센터 현장을 비롯한 세계 자연유산지역으로 선정된 제주도의 아름다운 영상,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평창 알펜시아 등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어느 매체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영상자료들을 소장 할 수 있었다.

요즘 종편 및 또 다른 뉴스채널 등 수많은 경쟁 채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채널과 차별화를 하려는 항공취재의 운영과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공중파와 비교해서 아쉬운 점도 많은 건 사실이다.

KBS MBC 헬기는 '웨스트캠'이라는 헬기 동체 밑에 부착된 렌즈를 통해 문짝을 담은 채 모니터를 통해서 리모트 콘트롤로 찍고자 하는 안정된 영상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르다. 동체가 작아 헬기 문짝을 떼고 온몸을 중무장한 채 때로는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와 싸우며 '자이로 마운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직접 촬영하는 방식의 위험을 무릅쓴 고난도의 취재 환경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영상취재부 헬기 전담 기자들은 공중에서의 좋은 영상을 기록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하늘을 날고 있다.



응답하라 YTN 1호기!

TV-U, 뛰어!

영상취재부 시철우



#1 "얼른 철수해!!! 빨리!!!!"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린다.

지난 8월 늦은 저녁, 태풍 볼라벤이 강타한 제주 성산포 항구에서 태풍의 위력을 전하던 취재진들의 다급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리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위력은 제주도를 집어삼킬 만큼 강했고, 성산포 앞바다를 지키고 있던 방파제를 넘어선 파도는 소식을 전하려고 늘어서 있던 각사의 방송 중계차를 덮치고 말았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을 전하기 위한 태풍 특보는 방파제를 넘어선 파도에 줄줄이 취소됐다. 하지만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이 상황을 전하는 방송이 있었다. 우리 YTN이었다.

#2 "우르르 굉음!!" 갑작스러운 소리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음을 직감케 했다.

도로가 꺼졌다. 지난 2월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고다. 주말 오후 평온하던 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붕괴된 도로 아래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다. 사건·사고하면 YTN 우리 취재진은 부리나케 현장을 향했다. 주말의 경인고속도로는 앞뒤가 꽉 막혀 현장접근조차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시민은 이구동성으로 "역시 YTN"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곧바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방송하는 우리 뉴스를 보고 한 말이다.

이외 여러 사례가 있지만 위 상황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생생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하는 YTN의 최전방 공격수 취재진이 그 첫 번째이고,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TVU라는 간이 송출장비가 바로 그 두 번째이다. 특히 요즘 우리 뉴스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한다는 인식이 생긴 이유는 바로 TVU라는 시스템 도입에 있다. TVU는 전화망을 이용해 화면과 소리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다. 3G망과 LTE망 어떤 것이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선택해 현장의 생생한 화면을 시청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은 간편한 휴대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커다란 중계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전파가 약해서 실시간 화면 전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 취재진과 시청자와의 거리를 혁신적으로 좁혔다. 독도에서도, 백령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TVU만 있다면 어떤 소식이라도 생생한 날것 그대로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출이 어려워 PC방을 찾아 헤매던 취재진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해 애태웠던 우리가 TVU를 통해 시간을 아끼고 큰 시름을 덜게 된 것이다.

TVU가 구현해주는 생생한 소식은 YTN과 시청자와의 거리를 더 가깝게 좁혀주었다. 하지만 TVU를 통한 생방송이 무조건적인 능사는 아니다.

얼마 전 발생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 현장 생중계 중단 사고, 대선 후보 연설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연설 방송 중단 사고에서 보듯이 TVU가 모든 현장을 안정적인 상황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전화망 폭주 시 불안한 전송 상황 등은 TVU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TVU를 켜서 전파를 선정한다. 그러나 길어진 방송 대기시간은 배터리 문제를 야기한다. 또 생방송에서의 거친 영상보다 정제되고 다양한 앵글의 화면을 취재해서 정확한 방송을 해야 하는 우리 카메라 기자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현장에서 TVU 생방송에 치중하다 보면 이른바 '물'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방송사가 앞 다퉈 TVU를 이용할 때면 HD 방송이 무색할 정도의 불안정한 전송 상황으로 방송 불가한 화면이 전파를 타기도 한다. TVU는 가동성, 휴대성, 경제성을 무기로 우리와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혔지만, 이를 이용 하는 우리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주)TVU는 "당신(you)을 위한 TV"라는 의미라고 한다.

날씨를 조율하는 사람들

케이웨더 홍보팀장 **홍국제**



케이웨더 기상캐스터
윤지향 이예지



오늘

• 바깥활동 좋아요!
동해안 산발적비

케이웨더 제공

케이웨더 제공

얼마 전 부터 YTN 날씨화면 하단에 '케이웨더 제공' 이라는 다소 생소한 문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97년부터 민간 기상업자도 일기예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방송에 민간예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를 찾아가 봤다.



케이웨더(Kweather)는 기상정보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요?

케이웨더는 언론, 기업, 국가·공공기관 4천여 곳과 일반인에게 기상정보·콘텐츠, 기상컨설팅, 기상장비솔루션 등 '종합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사업체입니다.

기상청이 생산한 기상정보 및 케이웨더의 자체 예보를 바탕으로 유통, 레저, 보험,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날씨 앱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YTN 뉴스&이슈 기상방송에 케이웨더의 자체 예보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방송사들이 기상정보를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이웨더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온케이웨더(Onkweather)'에서도 날씨와 관련된 각종 응용기상정보가 있습니다.



날씨와 경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산업의 70~80%가 날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로 날씨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호우, 폭설, 태풍, 강풍, 가뭄 등의 기상현상들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산업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 날씨로 인해 어느 하나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마치 도미노와 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육성 프로젝트 <나도 기상캐스터>가 있는데요,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분들의 귀가 쫑긋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기상캐스터>는 일반인 누구나 기상캐스터에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상캐스터가 날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나도 기상캐스터> 서비스를 통해 기상캐스터 지망생들을 소개하고 구인과 구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케이웨더 출신 기상캐스터 5명이 방송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케이웨더의 목표는

케이웨더는 국내 기상산업이 미국, 일본, 유럽 등 기상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 시장 개척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 인터넷에서 건진 **특종**

지앤디원텍이 전기차 등 신기술을 내세우며 급성장한 시기는 2010년. 이듬해에는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액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 성장은커녕 회사의 재무 유동성은 계속 추락했고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을 거듭하다 올해 초 결국 상장 폐지 됐습니다.

재향군인회
부실보증 취재



제작팀 김지선



수상한 거래! 주가 띄우기?

인터넷 정보와 기사에서 발췌한 사실에 의존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수백억 보증을 서고 사채 발행을 도와줌. 사채를 발행한 돈은 사실상 재향군인회가 챙김. 수조 원 규모의 재향군인회가 사업에 관여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 사업을 추진한 최 씨와 재향군인회는 재미를 보고 이후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개미 투자자는 거덜. 하지만 수백 억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 수사망에 최 씨가 걸림.'

당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대부분은 맞아 떨어졌지만 정작 최 씨는 주가 조작이 아닌 단순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부족하고 수사는 해야겠고... 결국 검찰은 재향군인회에 입금된 선금금 가운데 일부를 최 씨가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우선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몸통'으로 의심되는 재향군인회 역시 수사선 상에 있었던 겁니다.

"최○○ 이란 사람을 검찰에서 조사 중." 부장에게 들은 이름 석 자가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막연한 제보에 검찰 취재도 녹록치 않은 상황.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검색창에 이름 석 자를 쳐 봤습니다. 최○○님 둘째 둘 사진, 최○○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등 딱 봐도 끌리지 않는 정보를 골라내니 "지앤디원텍, 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이란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지앤디원텍'의 최 대표,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우선 회사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주가정보 등을 살펴본 결과 꽤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앤디원텍이 전기차 등 신기술을 내세우며 급성장한 시기는 2010년. 이듬해에는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액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후 성장은커녕 회사의 재무 유동성은 계속 추락했고 신용등급마저 하향조정을 거듭하다 올해 초 결국 상장폐지 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높은 금액의 사채 발행이 가능했다는 점. 도대체 누가 보증을 썼기에... 이 또한 인터넷에 답이 있었습니다. 사채가 발행됐을 당시 인터넷 신문 하나가 기사를 썼더군요. 지앤디원텍이 사채를 발행해 벌인 사업에 엄청난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뛰어든 법인, 다름 아닌 재향군인회였습니다. 기사에는 사채를 발행한 돈이 사업 선금금 형태로 재향군인회에 입금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꼬리자르기!... 의혹은 남아



막상 최 씨가 조사를 받게 되자 재향군인회는 최 씨가 혼자서 꾸민 일이라고 잡아땀습니다. 처음 취재할 때는 최 씨를 아예 모른다고 하더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인감을 도용한 것 같다는 등 꼬리자르기를 했습니다. 취재 중 만난 재향군인회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기사가 나가면 현재 회생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게 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니, 그걸 왜 재향군인회가 걱정합니까? 재향군인회 주장에 따르면 향군은 모르는 사이 명의를 도용당해 수백억 빚보증을 서고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된 회사의 주가를 걱정하고 있다니요. 혹시 재향군인회도 투자자 중 하나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주가조작을 의심하던 검찰도 끝내 사건을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최 씨가 재향군인회의 인감을 도용한 해프닝으로 보도됐습니다. 개인의 횡령 비리 뒤에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조직의 수상한 거래가 끝내 의혹으로 남은 아쉬운 취재였습니다.

‘돈 먹는 하마’ ... 애물단지의 탄생

건설 과정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황,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이 우여곡절 끝에 달리기 시작했지만 화려한 개통식을 연지 불과 하루 만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전면 운행 중단 소식은 밤 10시가 채 안 된 시각에 YTN을 통해 가장 먼저 보도됐고, 다음 날 새벽까지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사회1부 이종원

철축 같은 어둠 속, 사람들의 탈출 행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발이라도 헛디딜까, 휴대전화 조명에 의존해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람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바로 선로 위입니다. 20m 높이에 떠 있는 철길을 따라 수백 명이 줄을 지어 걷고 있지만, 안전 요원이나 조영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이 모든 운행 구간에서, 선로 위에 그대로 멈춰선 겁니다. 유료운행을 하루 앞두고 무료 시승 행사를 열고 있던 터라, 주말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경전철은 만원 상태였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황, 우여곡절 끝에 전동차가 달리기 시작했지만 화려한 개통식을 연지 불과 하루 만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경전철 운행이 중단된 건 토요일 밤 9시쯤. 전면 운행 중단 소식은 밤 10시가 채 안 된 시각에 YTN을 통해 가장 먼저 보도됐고, 다음 날 새벽까지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줄을 잇고 이어지는 승객들의 탈출 행렬의 모습이 담긴 화면과 함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1보를 날린 건 YTN의 첫 보도가

나간 이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고,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사들도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톱’ 꼭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의정부경전철은 열흘 동안 3차례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는데, 그 시발점이 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화면과 발 빠른 보도가 가능했던 건, 사회부 책상을 지키며 토요일 야근을 하고 있던 제 공이 아닙니다. YTN의 든든한 지원군인 ‘시청자’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현장 화면 역시 어떤 사례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촬영해 보내주시는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야근조를 이루고 있던, 한 연희 기자의 영특함도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당시 ‘수습 말년차로서 놀라운 전투력으로 폭풍 취재력을 선보였습니다.’

경전철이 멈춰 섰던 이유는 비상정지를 위해 설치한 밸브를 누르다가 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경전철 전동차에는 운전석이 따로 없고, 모든 역에도 상주하는 역무원이 없습니다. 전동차 한 대가 선로에 서버린 상황이니, 시스템상 모든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름 정확한 보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의정부경전철을 제가 직접 취재를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 밖에, ‘얼어걸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전철 시스템과 기존에 제기된 우려 등에 대한 이해가 돼 있었던 만큼, 운행이 중단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 손쉽게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긴 했습니다만, 의정부경전철에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운행 손실분을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죠. 지하철보다 가격도 비싸고 환승 할인도 안 되니, 주민의 외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달리는 경전철의 손실 보전 예산을 합하면 4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도 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경전철 공사가 한창이고, 수도권에서만 지자체 10여 곳이 경전철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건설비의 1/3 수준으로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전철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경전철 건설은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에게 ‘치적용’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두고두고 눈에 보이는 ‘건설 사업’으로 재미를 본 정치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고,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자칫 거대한 ‘애물단지’를 도심 한복판에 세워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YTN 중계 독도를 점령하다 OCCUPY DOKDO!



새벽에 출근해 조금 일찍 퇴근하여 모처럼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거라 믿었던 그날, 그 때 들려오는 휴대폰 소리. 그리고, 평소 일 많이 시키기(??) 유명한 중계데스크 오광식부장의 다급한 소리. "어보세요.", "너 울릉도 갈래?", "언제요?", "right now", "....." 우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와이프는 무덤덤(?), 작은 딸은 안가면 안돼? 어느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도 못하고, 예쁜 막내딸의 아쉬운 눈빛을 뒤로 하고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 "김정훈 독도 콘서트 생중계 뉴스참여"라는 YTN중계부의 무한도전이 시작되었다. 울릉도 팀은 오광식 부장과 나 2명. 독도 팀은 김민태, 한철욱 차장 2명이다.

이번 출장은 독도에서 보내는 방송신호를 울릉도에 있는 독도전망대에서 마이크로 웨이브(M/W)로 수신하여 다시 1km정도 떨어진 울릉도 KT로 보내 광신호로 변환하여 서울 본사까지 보내야 하는 2단 수중계이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일 잘하기로 소문난 후배인 김민태, 한철욱 차장은 독도로 항할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M/W, 안테나, 케이블, 필요한 각종 보조도구 하나까지 원래 출장이란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없으면 방송이 어렵다. 그래서 장비와 도구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놓고 점검하길 수 차례, 저녁10시에 회사를 출발했다. 울릉도 팀은 내일 아침 배를 타야하는데, 급작스런 출장이라 차량선적을 포함한 선박예약도 안 된 상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경 배를 타고 가는 독도 팀이 부러웠다. 결국, 우린 묵호항 주차장에서 차안에 앉은 채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첫 번째로 울릉도 배에 승선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난생 처음 기본 울릉도는 선상에서 바라볼 때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낭만은 잠시 뿐. 하선하자마자 우리의 고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장비를 설치해야 할 KT은 모두 계단으로만 이동 가능



중계부 오민철 차장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 허걱! 띄약벌에 비지땀을 흘리며 숨 돌릴 틈도 없이 200kg이 넘는 장비(대부분의 방송장비는 무겁다.ㅠㅠ)를 직접 운반해 설치해야만 했다. 독도와 링크를 구성해야 할 독도전망대는 경사도가 더욱 가팔라 힘들었다. 열악한 인력과 지원이지만 타사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당백 정신과 열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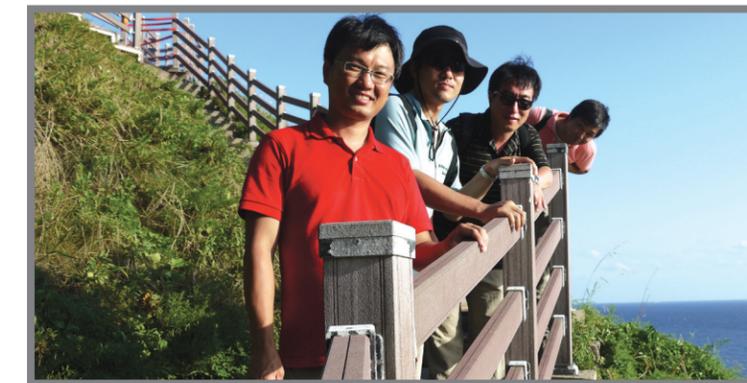
시간이 촉박했다.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독도 팀이 독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시간! 얼마 머무르지 못하는 독도 팀과 링크를 반드시 구성해야 했다. 어떻게든 방송중계 역사에 커다란 족적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출발 전 서로 포인트를 확인하고, 의견조율을 한 덕분에 링크구성 후 5분여 만에 독도의 신호가 울릉도에 잡혔고, 잠시 후 YTN본사까지 독도신호가 수신되었다. 저 멀리 망망대해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에서 YTN방송신호를 수신하는 순간 그 때의 짜릿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게 방송중계의 맛 아닐까?

중계예정 시각은 4시, 5시뉴스 2번 참여 방송30분전에 방송망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독도에 서서 스탠드업하는 안운학 기자의 모습이 독도갈매기와 어우러져 나오는 화면을 보자, 가슴이 울컥했다. 통행 시 여권이 필요 없는 곳은 우리 영토다. 여권 없이 방문한 그 곳 독도에서 온 신호는 분명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란 걸 YTN중계부가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비록, 날씨가 좋지 않아 김정훈씨 독도콘서트는 취소되었지만, 드디어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도 방송중계 가능지역이 되었다. 서쪽으로는 백령도, 남쪽으로는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독자적인 YTN 중계방송 커버리지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되었다.

통신장비의 발달로 사실 중계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방송의 안정성확보를 위해서 통신망이용은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 통신망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안정성 높고 화질이 우수한 독점망인 M/W가 더욱 돋보인 독도중계였다. 독도중계를 마치고 화포라도 풀게끔 울릉도항에서 애타게 독도 팀을 기다렸지만, 풍량이 심하여 결국 울릉도 접안을 할 수 없다는 안타까

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먼 옛날 고기잡이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독도로 간 김민태 차장, 한철욱 차장, 안운학 기자, 김정원 기사는 해경배를 타고 난민처럼 접안할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묵호항으로 갔다. 무려 24시간동안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리는 배만 탔으니 멀미를 포함한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울릉도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내륙에서 배가 뜨질 않아 하루 더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섬에 가실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시길^^ 참고로, 울릉도는 동해바다에서 갑자기 웅기한 섬이라 제주도와는 달리 길은 좁고 비탈져서 택시는 모두 RV차량이고, LPG충전소가 없어 당연 LPG가스 차량은 없다. 섬의 특성상 경작할 곳이 부족해 울릉도 물가는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 공기밥이 2천원!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ㅠㅠ 하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 풍부한 해산물, 원시림이 잘 보존된 아름다움, 천혜의 비경 등 치명적인 매력의 섬 울릉도를 떠나는 날, 난 약속했다. 언젠가 가족들과 꼭 다시 올 거라고!



마지막으로 독도중계를 구성하는데 부족한 인원으로 고생하는 우리들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배차실의 이상호님과 울릉도현지에서 많은 도움주신 KT관계자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

퇴근 무렵 제보 **전화**에 주목하라

기자는 소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제보자들은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 없거나 취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제보를 잘 받고 성실히 취재하면 특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1부 이정미

한국인 재력가 필리핀 암매장 사건 취재

부서 회식이 있던 날, 내근을 마치고 짐을 싸고 있던 상황. 먼저 걸려온 전화는 회사 선배의 화재 제보였다. YTN 파노라마 카메라에 불난 곳이 잡히니, 기사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술국 선배의 조언.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1보를 처리하고, 야근 기자가 현장에 나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다시 가방을 챙겼다. 그때 걸려온 또 한 통의 제보전화! 몇 분이나 대화를 나눴을까, 머릿속에 스쳐 가는 생각. "아! 얘기(기사)되겠다!"

취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필리핀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실종됐다가 암매장된 채 발견이 됐고, 가족들이 현지에서 추적해 경찰이 연루된 사람들을 붙잡았다는 제보였다.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는 제보자의 조심스러움에 질문은 조금씩 집요해져 갔다. 수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대강 적어두었다가 뒤늦게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은 제보자에게 물어볼 걸 후회하는 일이 아니던가. 우려와 달리 제보자는 신분만 숨길 뿐 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메모장에 단신을 써가면서 내용을 완성해갔다.

제보는 시간싸움! 회식은 물 건너갔고, 퇴근 시간도 한 시간 지났지만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내일 또는 월요일에 여유 있게 취재하잔 생각에 지상파에 특종을 빼앗겼던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일 거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담당은 결국 경찰청 출입인 나이고, 화재 때문에 야근 일손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청 담당자는 술잔도 한 번 기울인 적이 있는 사이, 일부 팩트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저곳 전화해 유도 질문을 해서 추가 팩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렵게 취재한 피해자의 실명을 토대로 숨진 사람이 유명 카지노 전 회장 아들이라는 것도 파악했다. 그날 밤 보도는 신속히 이뤄졌다.

다행히도(유도 질문을 통해 팩트를 취재했을 경우, 일부가 사실과 다른 위험 부담은 늘 따른다) 취재 내용은 사실이였다. 다음날 모든 언론이 받았고 경찰은 브리핑했다. 그때 떠오른 건 제보자의 말이었다. "자극적인 보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잡힌 사람들이 한국인이더라고요. 외지라고 한국인끼리 믿는데,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제보드리는 겁니다" 사건사고 보도도 의미는 있어야 한다. 후속보도는 필리핀에서 최근 한국인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부분과 주의점이 추가됐다.

선배들께는 건방진 얘기겠지만,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퇴근 시간 제보전화에 주목하라" 기사는 소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제보자들은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 없거나 취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제보를 잘 받고 성실히 취재하면 특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근 때마다 특종을 건지던 11기 강 모 기자와 13기 김 모 기자의 경우처럼.





DREAM ROAD,

'꿈'을 향해 가는 길

〈열린 라디오 YTN 특집 공개방송〉,
DREAMING

9월 17일... 밤 때 맞춰 찾아온 손님처럼, 제17호 태풍 〈산비〉가, 눈치도 없이 날짜 맞춰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YTN FM의 모든 프로그램이 태풍대비와 함께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하고 있었다. 태풍 〈산비〉가 서울경기 지방에 제일 가까이 근접한 오후 두 시!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점검 거세지는 비바람을 뚫고, 공개방송이 열리는 인천 송도로 향하고 있었다.

YTN 라디오 류진희 작가

'오늘 공개방송 취소되는 거 아니겠죠?' 출연자들의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이러다 관객이 한 명도 없으면 어쩌나.....' 제작진 마음속에선 태풍급 바람이 계속해서 휘몰아쳤다.

걱정과 달리 현장은 뜨거웠다. 아침 일찍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개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음향팀과 영상팀, 조영팀 스태프들은 열과 성을 다해 DREAMING, 장애인 기능인 선수들을 위한 〈꿈의 무대〉를 만들고 있었다. 공개방송 장소인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는, 오는 동안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듯이 〈제2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회출전선수들과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공개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엔 태풍도 어쩌지 못한 '꿈'이 있었다.

TIME TO DREAM, 저녁 7시!

이성규 이사장 :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오신 자랑스런 선수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전진영 아나운서 : YTN FM 가족 여러분도, 이 뜻깊은 축제, 방송으로 함께 즐겨주세요. 저는...YTN NEWS FM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세계 최고의 기능인을 꿈꾸시는 분들답게 환영의 기술도 정말, 최고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저녁 7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과 전진영 아나운서의 힘찬 오프닝멘트로 YTN NEWS FM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기획한 〈열린 라디오 YTN, 특집 공개방송, DREAMING〉이 시작됐다. 제29회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개방송은, 가수들의 축하공연만으로 이루어지는 대개의 공개방송과는 달리,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방송인 박승기가 진행한 〈열린 양케트 내 마음을 맞혀봐〉에서는 280여 명의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에게 사전조사한 〈꼭 이루고야 말 NO.1 Dream〉, 〈첫 월급으로 하고 싶은 일〉 (제일 보고 싶은 사람) 등의 양케트 결과가 발표돼, 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의 취업에 대한 열망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개그맨 겸 가수 '이봐'가 진행한 〈선물이 터지는 퀴즈쇼〉에서는 재밌는 퀴즈와 함께, 정답자에게는 히딩크 넥타이와 스카프, 쌀, 인천과 김포 특산물 등의 선물이 즉석에서 주어져, 뜨거운 객석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기에 꿈꾸는 퍼포먼스 그룹 '에이블(A-ble)' 감미로운 화음의 포크 트리오 '자전거 탄 풍경'과 파워넘치는 그룹 〈캔〉의 힐링 콘서트까지 더해져 선수들의 긴장감을 달래는 한편, 도전 의지를 끌어오르게 했다.

저녁 9시! 이성규, 전진영 두 MC와 출연진, 그리고 관객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도전'을 외치면서 두 시간의 공개방송이 마무리됐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행복도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온 우주가 그 꿈을 위해 움직인다고 한다. 〈열린 라디오 YTN 특집 공개방송 DREAMING〉은 꿈이 가진 힘과 꿈이 가진 큰 행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유일의 과학기술전문방송인
 YTN SCIENCE는 재미있는 과학,
 유익한 과학, 행복한 과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과학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는 제3차 과학기술전문방송 채널사업자 공모가 있었다. 그렇기에 사이언스TV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연초부터 사업공모 준비로 분주했다. 이유는 이번 과학방송 채널사업자 공모는 1, 2차에 비해 많은 경쟁사가 뛰어든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전문방송이라는 채널의 정체성을 살리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에게 언제든지 TV를 켜면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접하게 하려고 자체제작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편성 전략을 펴왔다.

경쟁사들은 공모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도 우리를 폄하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제3차 채널사업자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에 힘입어 YTN SCIENCE는 국내 과학 대중화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본부와 함께 과학콘텐츠를 공급하는 K-Science를 바탕으로 한 과학한류를 위해 2013년 1월 7일 대대적인 편성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YTN SCIENCE 주요 개편방향은 과학 다큐멘터리를 자체 제작해 강화하는 것과 과학계 뉴스를 전하는 사이언스24의 요일별 섹션을 다양하게 마련해 뉴스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박상원의 WHY&HOW는 시사적인 사건·사고의 뒷이야기를 심층 취재해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도한다. 자체제작 과학 다큐멘터리(50분 물)는 매주 과학기술, 환경, 자연, 에너지, 역사, 디자인, 문화 등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구성해 요일별 블록 편성을 통해 시청자가 쉽게 접하게 할 계획이다. 사이언스24는 과학계 뉴스 이외에 사이언스북, 특허기술, IT, 최신 영화 속 과학, 칼럼 등 여러 분야의 인물을 출연시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 밖에 <스팀 패트롤>, <ZOOM IN 현장>, <You are a 닥터>, <한국의 맛>, <초대석>, <김창렬의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이공계 취업 프로젝트 <슈퍼사원>, 심리분석 <김생민의 프로파일> 등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과학정보 욕구를 채워준다.

2013년, 또 다른 시작을 앞둔 YTN사이언스! 과학기술전문방송의 진정한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갈 것이다.

과학 강국 코리아 파이팅! YTN SCIENCE 파이팅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한다!”

류승재 PD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인데요.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만도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병사의 외침이 아닙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사나워지는 기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지난 100년간, 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치는 0.74℃.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인데요.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만도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각과 노력이 있다 해도 이번 세기 동안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한파와 열파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물, 식량, 에너지 등 우리 삶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그 생생한 현장을 찾아 영국, 일본,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을 3개월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물, 식량,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인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적응해야 하는지를 담은 3부작 다큐멘터리였는데요. 20개가 넘는 사례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일 거로 생각했던 기후변화가 내 등 뒤에 섬뜩하게 바짝 다가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반면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다양한 사례를 만나면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에 대한 확신도 얻었습니다. 너무 호들갑 떨며 현재 상황을 과장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3부 마지막 에필로그를 장식한 호주의 사례를 접하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서쪽에 자리 잡은 흑스버리 환경연구소에는 아주 독특한 시설이 있습니다. 호주 숲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 군락지에 거대한 파이프로 만들어진 원형 울타리가 설치돼있는데요. 그 높이가 자그마치 30미터에 이릅니다.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프에는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뚫려있는데요. 그 구멍으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50년 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달라지는 나무의 생장, 토양의 성분과 수분함유량을 측정해 기후변화로 바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광활한 대륙을 지닌 호주인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건, 최근 엘니뇨의 영향으로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되면서 건조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어우러기의 비타민 YTN



어우러기는 '중증 장애인의 벗'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1992년에 출범하여 어느덧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지난 일을 생각해보니 YTN에 새록새록 감사함이 우러나옵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언론에서도 밝은 면을 많이 조명하여 보도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고 인권적인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창피스럽다면서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되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예전처럼 두려움이 크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중증장애인이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도 가능하고 지하철엔 엘리베이터가, 시내버스엔 리프트가 설치되어서 주변에서 조금만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식 개선이 있기까지는 크고 작은 역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YTN에서 도와주신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우러기가 처음으로 YTN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우러기 대표인 이광범씨가 YTN에 근무하면서 동료의 협조로 일일호프 행사를 하었는데 그해 첫 수익금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어우러기 중증장애인에게 기증했고, 장애인은 주변의 도움 없이도 안산에서 서울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범 회장은 이것을 보고 보람이 있었다는 YTN 분들의 얘기에 힘을 얻어 지금까지 10여 년을 계속하여 일일호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생긴 일일호프 수익금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를 비롯하여 섭지는 않았지만 북한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한 번 바다에 가보지 못했다는 장애인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서 해수욕 체험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휠체어를 탄 채로 하늘을 오르는 열기구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YTN과 인연을 맺은 덕분에 YTN 서울타워 초청, 예술의전당 세계보도사진전 초청, YTN 주최 행사의 문화공연에도 여러 번 초청을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YTN은 어우러기에게 있어서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일일호프 행사에 도움을 주신 YTN 임직원분들이 참여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지면을 빌어서나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는 YTN 임직원 가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성마비인의 벗 '어우러기' 사무국장 **이원준**

3/4분기 포상

- 특종상 은상**
이정미, 최원석 사회부 : 한국인재력가 필리핀 암매장 사건 취재보도 / 김중호, 강현석 부산지국 : 시외버스 흥난동 사건 취재보도
- 특종상 동상**
이종원, 한연희 사회부 : 의정부경전철 전면 운행중단 취재보도 / 김지선 제작2팀, 권한주 영상취재2부 : 재향군인회 부실보증 취재보도
- 공로상**
김재학, 이상무, 신은영 정보시스템팀 : 보도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 신성원 편성운영부 : 시청률 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이강진, 김기연 편집3부, 호준석 앵커팀, 지경윤 그래픽팀, 최광희 제작기술부 : 오후 3시 '뉴스인' 출범 / 조상현 인프라팀 : 방송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 / 오민철, 김민태, 한철욱 중계부 : 독도 'M/W 생방송' 중계 10.5

- 게시판** **입사** 안미현 글로벌기획팀 11. 15 / 유진화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11. 12 / 박선영 해외방송팀 11. 1
- 퇴사** 배수현 타워운영팀 11. 25 / 강 엘리사 글로벌기획팀 11. 22 / 김남식 차장 마케팅팀 11. 19 / 이해석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10. 19
- 전보** 백상기 차장, 이민희 미디어전략팀, 황혜경, 박기현 정치부, 장아영 스포츠부 11. 19